

“영화로 활력을”...26~29일 광주독립영화제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영상문화의 중심인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광주독립영화제의 주제는 ‘비타민 F(ilm)’이다. 삶에 지친 관객에게 영화가 작은 활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독립영화만의 생기와 감수성을 통해 일상에서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극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한 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회가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고릴라랜드 후원 시나리오 피칭 ▲지역영화 네트워크 포럼 ▲광주 영화인의 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지역 영화문화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이다. 장애를 지닌 청년이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은 간접한 몸짓과

광주극장·독립영화관서 ‘비타민F’ 주제로 총 26편 상영
개막작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 선착순 무료 관람
감독과 대화·영화인의 밤·네트워크 포럼 등 행사 다채

반짝이는 눈빛으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개막작은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된다. 음성해설과 자막을 통해 시청각 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영화의 감동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막작은 전석 무료(선착순)로 모든 시민이 별도의 예매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광주극장이 영상기, 스크린, 음향시스템을 전면 교체한 이후 처음으로 상영하는 영화가 개막작이어서 광주독립영화제 의미를 더한다.

올해 광주독립영화제는 총 26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광주지역 창작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로 지역성과 동

시대성을 생생하게 담아낸 ‘메이드 인 광주전’, 새로운 시선과 감각을 지닌 젊은 감독들의 작품을 통해 광주 영화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광주 신진 감독전’, 오랜 시간 지역 영상 생태계를 지켜온 송원재 감독의 창작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송원재 감독전’, 캐나다 퀘벡 지역의 작품을 선보이는 ‘퀘벡 내셔널데이’ 등 다양한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상영작이 끝난 뒤에는 ‘감독과의 대화’ 행사도 열린다. 영화 제작 배경과 창작 의도 등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개막작을 제외한 상영작 예매는 광주독립영화관 누리집(gift4u.or.kr)과



디트릭스(ditryx.com) 예매 플랫폼에서 하면 된다.

이신화 콘텐츠산업과장은 “광주독립영화제가 시민과 창작자를 연결하는 뜻깊은 문화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영화의 힘으로 치유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책 읽는 광주’,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제 공모 시, 재인증 6월 12~27일, 신규 7월 1~11일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서점 보호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제’ 신청을 오는 7월 11일까지 받는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시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반기 인증에는 신규 서점뿐만 아니라 인증이 만료되는 기존 인증서점 80개에 대한 재인증도 함께 이뤄진다.

인증 요건은 ▲광주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블록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는 서점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이다.

인증기간은 심의 완료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서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때 우선 계약 대상이 된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서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재인증 대상 서점의 경우 6월 12일부터 27일(금)까지, 신규 인증의 경우 7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다.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tumbler7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내부 회의를 통해 7월 중 인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서점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제도”며 “신규와 기존 서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고흥아트센터에서 전남 청년 작가 김규린 씨의 민화 작품 전시회(민화, 소망을 아로새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고흥아트센터의 2025년 제2차 전시 대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팀 중 하나인 김규린 작가의 개인전으로, 총 40여 점의 민화 작품이 전시된다. 작가는 전통 민화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일상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고흥군, 고흥아트센터에서 <민화, 소망을 아로새기다> 전남 청년 작가 김규린 민화 작품 40여 점 선보여

앞서 4월부터 5월까지의 제1차 대관 전시를 통해 캘리그래피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흥아트센터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혜정 외 3인의 그림전을 통해 설치미술, 조각,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작품 4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열린 문화

공간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지역 예술작가들에게는 문화예술 창작의 기쁨을, 군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 및 대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누리집(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1-830-5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민화, 소망을 아로새기다



김규린 개인전 Solo Exhibition
2025. 06. 24. (Tue) ~ 07. 13. (Sun)
고흥아트센터, 원도영 주관
문의 010.4588.0606

광양중마도서관, ‘벽돌책 완독 챌린지’ 2기 운영

광양중마도서관은 시민들의 깊이 있는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벽돌책 완독 챌린지’ 2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벽돌책 완독 챌린지’는 두꺼운 도서를 참가자들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꾸준히 읽고, 온라인을 통해 독서 소감을 나누는 독서 프로그램이다. 지난 1기에서는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을 주제 도서로 선정해 높은 완독률과 참여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번 2기 주제 도서는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으로, 저자는 기술과 플랫폼 발달로 집중력이 약화된 현대인의 삶을 조명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과 실마리를 제시한다.

프로그램은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독서 인증 챌린지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독서 전문가의 코칭으로 운영된다. 완독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에게는 완독자 상품과 도서 대출 권수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6월 16일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 내 ‘도서관 서비스 → 수강 신청’ 탭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1-797-3880)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재)담양군문화재단,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참여 예술인 모집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 이하 재단)은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담양 예술인을 모집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인의 홍보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각 장르별 예술인 간 네트워크와 협업을 더욱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술인 프로필 사진 및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촬영은 스튜디오 및 개인 작업공간 등

에서 진행되며, 예술인의 활동 이력과 작품 소개, 예술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터뷰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신청은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고문과 포스터에 첨부된 구글폼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기획력, 활용 가능성, 참여 의지, 장르 다양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14명의 예술인을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재단 예술인 DB 등록을 안

료했거나 등록 예정인 예술인으로, DB등록 자격과 절차는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프로필 제작 지원과 함께 재단 누리집과 공식 SNS채널에 예술인 프로필 사진과 영상이 등록되며, 오리엔테이션 및 결과 공유회 등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담양/이종욱 기자



보다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농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